

여수시노인복지관, '여수형 보건복지 플랫폼' 민관협력 '앞장'

저장강박 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민관단체 30여 명 참여 15톤 쓰레기 수거

여수시노인복지관은 2021년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여수형, 섬섬여수 보건복지 플랫폼) 수행기관으로 지난달 28일 저장강박 가정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가구는 수십년간 모은 폐기물, 잡동사니 등이 집안의 지붕까지 쌓여 비위생적인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는 등 건강문제와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이에 여수시와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지속적인 설득과 관계자들이 수차례 사례회의를 거쳐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었다. 이날 주거환경개선에 시를 비롯해 여수시노인복지관, 광림동주민센터, 모두모아봉사대, 한영대학교 자원봉사팀 5개 민관단체 30여 명이 참여했다. 시와 동주민센터에서는 청소차와 집기류를 지원하고, 노인복지관에서는 사업추진과 자원봉사 모집을 책임져 15톤이 넘는 쓰레기를 치우고 깨끗한 주

거환경을 조성했다. 김진우 관장은 “민관협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설득으로 굳게 닫힌 대상자의 문과 마음을 열어주신 여수시와 주민센터 담당자,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민관이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적극 발굴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여수형 민관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수행기관 8개소와 함께 다양한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여수=오상호기자



여수시와 2021년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여수형, 섬섬여수 보건복지 플랫폼) 수행기관인 여수시노인복지관(관장 김진우)이 지난달 28일 광림동주민센터, 모두모아봉사대, 한영대학교 자원봉사팀 5개 민관단체 30여 명이 참여해 저장강박 가정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노령·장애·질병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지원

장흥군이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세대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의료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 국정 목표(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맞춰 군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흥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1,178세대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매월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장흥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금액이 1만 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조손가정이

다. 장흥군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 빈곤 해소, 안정적인 진료 혜택 등을 제공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 보험료조차 내지 못하는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마을공동체 여가활동 지원·공동작물 재배로 큰 호응

강진군은 어르신들의 활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농촌 어르신들의 경험과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일거리를 통한 생산적인 공동활동과 신체·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으로 올해 군동면 화방마을이 선정되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해 총 5회에 걸쳐 운영하는 이번 교육은 공동체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 식물 기르기, 꽃 장식 등 원예 치료교육으로 어르신들의 심신의 안정과 생활의 활력을 도모하는 한편, 공예교실, 건강요리교실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 어르신과 젊은 세대가 함께 700여 평의 공동담에 옥수수과 대파를 재배하고, 수확이 완료되면 여름에 시래기용 무를 파종하여 무청시래기를 생산하여 사업화할 계획이다.



전광열 화방마을 이장은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소일거리 활동으로 공동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마을에 활력이 넘치고 있다”면서 “공동작물 재배로 얻는 소득은 마을어르신에게 환원하여 어르신들이 경제·심리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지혜 인력육성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적절한 노동을 통한 소득 활동과 공동체 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노후 생활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진=김영일기자

무안군, 제3호 치매안심마을 지정 위한 간담회 개최



무안군은 지난달 28일 운남면 하묘2리 둔전마을을 무안군 제3호 치매안심마을

로 지정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마을 지정사업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통해 치매환자가 자신의 삶터에서 가족과 함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군은 2019년 일로읍 월암1리 황소안마을을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작

년 몽탄면 사창1리 원사창 마을을 제2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의 조사 결과와 사업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운남면 하묘 5개 마을이장과 제3호 치매안심마을 지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